

# ‘대학원생 사망’ 5개월만에…전남대, ‘갑질 교수’ 결국 해임

‘정규직이라서 2학기 수업 배정’ 논란 끝에 해임 징계  
총장 사과 인색·재발방지 미흡 지적…유가족 산재 신청

전남대에서 대학원생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사망한 지 5개월여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와 연구교수가 모두 해임됐다.

당초 지도교수가 ‘갑질’ 가해자로 지목되고도 ‘정규직’이라는 이유를 들어 2학기 수업을 배정해주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전남대는 뒤늦게 징계 절차에 나서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검찰에 넘겨지고 ‘갑질’ 사태가 확인됐음에도, 이근배 총장 명의의 공식 사과를 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과에 인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대는 지난 15일 대학원생 A(24)씨에게 갑질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도교수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B씨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남대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B씨에게 권한 남용, A씨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이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연구비 부정 행위’ 등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최소 해임,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또 다른 가해자인 연구교수(박사) C씨는 지난달 말 계약기간을 한 달 남기고 해임됐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5개월여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이 모두 이뤄지게 됐다.

앞서 전남대가 지난달 발표한 진상조사위원회 활

동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연구기획, 결과보고서 작성,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인건비 일부를 회수해 연구실 실비 통장에 입금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고거래, 식사 주문 등 사적 심부름도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카톡 등에서 부를 때 ‘킴’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 굴욕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대학원생이 제1저자로 등재된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2편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려 97.5점의 연구업적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는 A씨가 대학원생들이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과제 양의 2배에 가까운 양을 맡고 있었으며, 교수 2명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대는 A씨가 숨진 이후, 한 달 만에 B씨에게 2학기 수업을 배정해 줘 빈축을 샀다.

당시 전남대는 “B씨가 정교수라서 최소한 수업 시수만큼 의무적으로 학생 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거센 비판에 B씨가 모든 수업에서 자진 하차하자 “스스로 수업을 하지 않겠다면 상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밖에도 전남대는 “대학원생 갑질 문제는 전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히며 사안을 일반화하거나, 보고서 발부에 앞서 유족측이 요구한 조사 결과 공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입장을 취해 비판을 받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스승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긴 커녕 죽음으로 내몰았는



임신 조기 체험 16일 광주시 북구 본촌동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과 임신부 보호 홍보 캠페인에 참가한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임신 조기를 입고 아이 안는 법을 체험해 보고 있다.

데, 스승들을 대표하는 총장이 나서서 사과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스승이 사과한다고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올바른 스승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번주 안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족은 “연구 노동 현실 속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할 것이고, 민형사상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산재 판단 과정에서 학교의 진

상조사 보고서가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직권남용과 사기 혐의로, C씨를 강요,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 농어촌 숨통 트일까…정부, 계절근로제 확대

전남 20개 농협 등 참여…기숙사 확대 등 일손 지원 강화

눈부터 밭, 바다까지 농·어민들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2월 15일 7면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지방 정부와 분담해 전남 인력 운영, 인력 운송, 통역 인건비, 숙소 비용 등으로 농협 한 곳 당 1억원씩 지원한다.

이번에는 전국 151곳의 농협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농림부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30곳의 농협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2022년 5곳에서 2023년 19곳, 2024년 70곳, 2025년 90곳 등 매년 늘고 있다.

전남 지역에는 20곳의 지역 농협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강진 강진한들농협·도암농협, 고흥 팔영농협·풍양농협·흥양농협, 곡성 곡성농협·석곡농협·육과농협, 나주 금천농협·나주배원에농협, 무안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순천 순천농협, 영암 금정농협·월출산농협, 장흥 관산농협, 진도 선진농협, 해남 땅끝농협·문내농협·황산농협, 화순 도곡농협 등이다.

농림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지원금 각 24억원)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담양·무안·영암·해남을 비롯,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데, 오는 2028년까지 35곳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농림부 관계자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공교육으로 광주 미래 연다…‘기본교육특별시’ 추진

시교육청, 교육 안전망·맞춤형 성장·행복 공동체 ‘3대 축’ 전략

광주시교육청이 ‘기본교육특별시 광주’ 전략을 추진한다.

공교육을 통해 교육구성원의 회복·성장·행복을 실현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원동력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담은 상징적 선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교육안전망·맞춤형성장·행복공동체를 3대 축으로 한 공교육 성공모델로 ‘기본교육’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12월 12일 교육부가 ‘국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강국’이라는 국가 교육 비전을 발표했다”며 “국민 주권시대에 강조되는 ‘기본사회’ 논의에 발맞춰 ‘기본교육’을 통해 시대의 요구와 방향을 담은 공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기본교육을 ‘교육안전망·맞춤형 성장·행복공동체’ 3대 축으로 추진한다.

교육안전망은 교육구성원의 마음과 관계를 보듬고 회복시키는 체계로, 관계를 통한 마음건강과 인성·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여 학생들의 일상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본교육 경비인 ‘꿈드림미’를 통해 학생의 요구에 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맞춤형성장은 학생 각자의 다양한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 영역으로, 기초학력과 독서·인문, 진로·진학·직업, 문화예술·체육교육을 다양화하고, 수학·과학교육과 AI·디지털교육, 글로벌 역량까지 미래 역량을 두루 지원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현재 초등에 머물고 있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중등까지 확대해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복공동체는 소통과 협치, ‘광주다움’을 키우는 영역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학교자치, ESG 기반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해 함께 만드는 교육을 구현한다.

교육청은 이번에 선언한 기본교육을 내년도 광주교육 4대 영역과 16대 중점사업에 반영해, 다양한 실력으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세계민주시민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으로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교육으로 키워 낸 10년 만의 수능 만점 성과를 기본교육을 통해 이어가겠다”며 “기본교육의 시작은 기본교육이며, 그 시작을 지금, 여기, 광주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겨울철 일등보양식

###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 고단백, 면역력 최고!

###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